

“지역문화진흥기금 정부 지원 절실”

문화 격차 해소 위해 시행 10년째
기금 조성 지자체 전국 33곳 뿐
이중 45%는 수도권·부산 편중
광주 전무...전남은 4곳 조성

지역문화진흥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33곳(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조례는 제정돼 있으나 관련 기금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남 지역에서도 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는 4곳(강진, 목포, 진도, 해남)에 불과했다.

저조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취지인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따라 재원마련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 분권’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해 2013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10년이 지났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기금을 조성한 전국 33개 지자체 중 45%인 15개가 서울·경기·부산에 집중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통해 극단 ‘아미가 선보인’ ‘까치와 바보호랑이’ 공연 장면. <광주일보 DB>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가 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부담해야 하는 기금 문제로 인해 정부지원 없이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고스란히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로 이어졌다.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된 1만 5468건의 공연·전시회 등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서 열렸으며, 전국 3145개 문화기반시설 중 3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그나마 강진군은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수가 직접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지역문화 진흥,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진도군의 경우에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쓰이는 기금을 군에 설치,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이외 목포, 해남 지역에서도 재원마련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외 전남지역 지자체와 광주시는 기금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것이 관련 기금의 부담을 지방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삶 감싸안은 ‘보따리’ 푼다

한국·호주 예술단체 협업 연극 ‘보따리’ 13~14일 ACC 예술극장



연극 ‘보따리’를 연습하는 장면.

<ACC 제공>

한국인에게 보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소품이다.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보따리에는 추억과 눈물, 기쁨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저마다의 보따리는 또한 무수히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품고 있다.

그처럼 보따리는 보따리의 기능 외에도 삶의 회로에 띠가 깎여 있다. 우리의 역동적인 역사 속 과거를 조명하는 데 있어 주요한 소품이자 상징물이기도 하다.

한국과 호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연극 ‘보따리’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13~14일 ACC 예술극장 극장.

이번 작품은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호주 무용단 플렉서스2 댄스 콜렉티브와 국제공동으로 창·제작했다. 특히 국내 예술단체와 해외 예술단체가 협업해 아시아문화자원을 모티브로 실현적인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사다리움직임연구소는 신체의 움직임과 오브제의 관계를 극적인 언어로 환유해 작업을 해왔다. 작품의 프로그래머는 기억 속의 다양한 보따

리가 펼쳐진다. 이어 이상의 시 ‘오감도’의 시상을 연출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질문이 이어진다. ‘오감도’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가 주인공으로 나와 보따리를 매개로 서사를 이어간다.

특히 작품에서 보따리는 사물과 신체의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임도완 연출가가 극작과 연출을 맡았고 13명 단원이 13인의 아해로 분해 다채로운 움직임을 펼쳐 보인다. 정은영, 윤진희, 이상일, 이승우 등이 출연하며 전석 무료.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임도완 연출가는 기획의도에서 “이번 작품은 근대화의 흐름 속 서구에 의해 규정되고 고착되어왔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이해를 살펴하는데 있다”며 “보따리는 역사와 맞물린 기능적인 의미 외에도 고전적인 사랑과 존중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연으로 보는 광주 총장로 도로명의 유래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
‘불멸의...’ 16일 금호아트홀

광주 총장로 지명의 유래가 된 총장공 김덕령(1568-1596)은 일관 당시 활약한 의병장이다. 현재 광주 의열사에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복구 금곡동에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총장사 유물관이 조성돼 있다. 또한 광주의 주요 도로가 ‘총장로’로 명명돼 그의 충혼을 기리고 있다.

광주 총장로 도로명에 얽힌 유래를 살펴보는 공연이 열린다.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이 오는 16일(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선보이는 ‘불멸의 총장로-도로명 톨아보기 총장로편’이 바로 그것.

먼저 ‘불멸의 혼 총장공 김덕령’이라는 주제로 김덕령 장군의 인생을 극으로 조명한다. ‘소년장사 김덕령, 어른이 되다’, ‘김덕령 의병장이 되다’ 등은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이 지난 ‘불멸의 총장로’ 공연을 선보이는 장면.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제공>

김덕령의 성장과정은 연극 형식에 담았다. 또 낮을 위로하는 살풀이 ‘춘산곡’과 1인 검무 ‘취시가’도 볼 수 있다. 이외 가야금, 타악, 기예무, 아쟁, 대금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총장로 줌라레라’라는 제목의 현대극도 펼쳐진다. 삼복서점, 총장서림, 광주극장, 25시 레

코드사 등을 배경으로 총장로의 하루 역사를 극화한다는 계획. 예술감독은 성심은이 맡았으며 가야금은 오은수, 최지혜, 선지향, 김효빈 등이 연주한다. 다음 공연은 금남로편(추후 일정 공개 예정). 자세한 내용은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잔액 0원 인증하면 선물

전남문화재단, 22일까지 잔액 소진 2차 이벤트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전시관람, 여행 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11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 시행 9주년을 맞았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잔액 0원을 인증하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진 2차 이벤트’를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전남도 기초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연장 이용을 추가로 인증하면 더 많은 상품

을 증정한다는 계획.

문화누리카드 잔액 전액을 사용한 뒤 잔액 0원을(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인증하면 대형 머그컵 및 장바구니를 각 1개씩 증정(선착순 100명)한다. 전시장, 공연장 등 기초문화예술 분야 이용을 인증하면 추가 상품을 지급한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2차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올해 문화누리카드 이벤트는 마무리된다”며 “내년에도 문화누리카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생활문화진흥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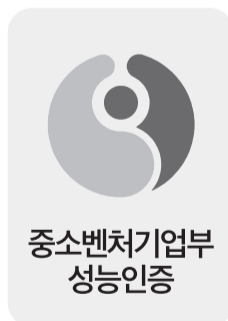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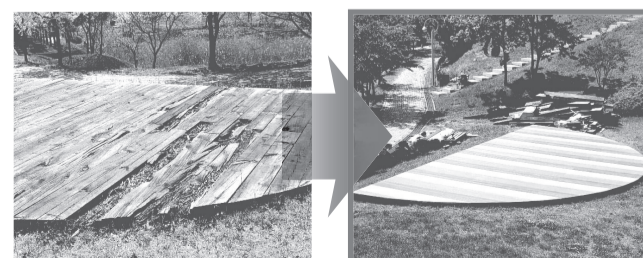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